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제2외국어/한문영역 독일어 I 정답 및 해설

01. ⑤	02. ④	03. ②	04. ①	05. ②	06. ④	07. ③	08. ①	09. ⑤	10. ②
11. ②	12. ①	13. ④	14. ⑤	15. ③	16. ①	17. ⑤	18. ④	19. ③	20. ①
21. ④	22. ③	23. ⑤	24. ③	25. ⑤	26. ②	27. ③	28. ③	29. ④	30. ⑤

[1~5] 발음 및 어휘

1. 자음 발음 이해하기

A : 이분은 누구니?
 B : 이분은 내 삼촌이야.

- ① Sohn [zo:n] ② Wand [vant] ③ Tante [tántə]
- ④ Ankunft [ánkunft] ⑤ Meinung [mámvʏŋ]

정답해설 : Onkel의 자음 'n'은 [ŋ]으로 발음하므로 같은 발음이 들어 있는 낱말은
 ⑤ Meinung이다. 정답 ⑤

2. 강세 규칙 이해하기

A : 스벤, 여가 시간에 너는 뭘 하니?
 B : 나는 자주 피아노를 쳐.

- ① Natur (2음절 강세) ② Regal (2음절 강세)
- ③ Termin (2음절 강세) ④ Urlaub (1음절 강세)
- ⑤ Student (2음절 강세)

정답해설 : Klavier는 2음절 강세 어휘로 강세의 위치가 다른 낱말은 ④ Urlaub이다.
정답 ④

3. 명사 어휘의 활용 이해하기

A : 울름으로 가는 기차를 타기에 제가 너무 늦었나요?
 B : 아니요, 출발(시각)이 10분 후입니다.

- ① 휴식, 쉬는 시간 ② 출발(시각) ③ 교차로
- ④ 차표 ⑤ 정류장

정답해설 :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② Abfahrt이다.
정답 ②

4. 형용사 어휘의 활용 이해하기

- 시계는 (a)반 시간(30분)에 올린다.
- 바다까지는 (b)족히 2킬로미터 더 남았다.

- | | | | |
|------------|------------|------------|------------|
| <u>(a)</u> | <u>(b)</u> | <u>(a)</u> | <u>(b)</u> |
| ① 반(30분) | 족히 | ② 반(30분) | 매우 |
| ③ 텅 빈 | 족히 | ④ 가득 찬(정각) | 매우 |
| ⑤ 가득 찬(정각) | 많이 | | |

정답해설: 빈칸 (a), (b)에 알맞은 것을 고른 것은 ① (a) halben (b) gut이다.

정답 ①

5. 동사의 활용 이해하기

- 신문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보도하지 않는다.
- 그녀는 나를 항상 웃게 한다.
- 이번 겨울은 눈이 많이 내린다.

- ① 방해하다
- ② 가져오다, 공개하다, 게재하다, 방송하다, (결과로서) 가져오다, 야기하다
- ③ (자동사) 값이 ~이다, (타동사) (비용/노력을) 필요로 하다
- ④ 말하다
- ⑤ 달다

정답해설 :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동사는 ② bringt이다.

정답 ②

[6~21] 의사소통 기능

6. 길 안내 표현 이해하기

- A : 실례합니다, 시립극장이 어디입니까?
 B : 유감입니다. 저 역시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저 경찰이 당신을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A : 정말 감사합니다.

- ① 그것에 찬성합니다
- ② 여기 출신입니다
- ③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④ 역시 여기가 처음입니다
- ⑤ 여기에 오랫동안 살고 있습니다

정답해설 : 길을 묻는 사람에게 자신도 잘 모른다고 대답하는 상황이므로 빈칸에 알맞은 것은 ④ bin auch fremd hier이다.

정답 ④

7.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 너는 또 리자와 카페에 가니?
 B : 응, 우리는 함께 공부해. 너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니?
 A : 클라우드한테서.

- ① 너는 어디로 가니 ② 너는 왜 묻니
- ③ 너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니 ④ 너는 무엇에 대해 설명하니
- ⑤ 넌 지금 무엇에 대해 생각하고 있니

정답해설 :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정보의 출처(근거)에 대해 묻고 답하는 상황이므로 정답은 ③ Woher weißt du das이다. 정답 ③

8. 동의를 표현하기

A : 우리 오늘 함께 영화관에 갈까?
 B : 그래, 나는 그것에 대해 반대할 게 없어.
 A : 아주 좋아. 그럼 내가 표 2장을 예약할게.

- ① 그것에 대해 반대할 게 없어 ② 그것을 할 의향이 없어
- ③ 유감스럽게도 할 일이 너무 많아 ④ 오늘 약속이 있어
- ⑤ 이미 다른 계획이 있어

정답해설 :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B는 A의 제안을 수락하는 상황이므로 빈칸에 알맞은 것은 ① nichts dagegen이다. 정답 ①

9. 만족 표명하기

A : 너의 새 방은 어땠니?
 B : 그것은 깨끗하고 집세가 저렴해(유리해). 더는 바랄 게 없어.
 A : 그렇다면 그 방이 네게 딱 맞는 거네.

- ① 난 그것에 만족하지 않아 ② 내 예전 방이 나았어
- ③ 거기에서 난 잠을 잘 못 자 ④ 내게는 비싼 방이 더 나을 것 같아
- ⑤ 더는 바랄 게 없어

정답해설 :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B는 새 방에 만족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⑤ Mehr kann man sich nicht wünschen이다. 정답 ⑤

10. 구매 표현 이해하기

A : 그럼 그 바지는 어떠신가요?
 B : 그것은 내게 좀 큼니다.
 A : 그렇다면 그것은 한 치수 작아야 할까요?
 B : 네, 그렇게 해 주세요.

- ① 그것은 내게 너무 짧습니다 ② 그것은 내게 좀 큼니다
- ③ 치수가 내게 매우 잘 맞습니다 ④ 나는 정확히 이 치수를 원합니다

⑤ 나는 한 치수 큰 것을 원합니다

정답해설 :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B가 입어본 바지가 좀 커서 한 치수 작은 것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답은 ② Sie ist mir etwas zu groß이다. **정답 ②**

11. 견해 표명하기

A : 난 추워. 내가 창문을 닫아도 될까?
B : 네가 원하는 대로 해 / 당연하지 / 난 상관없어 / 그래야 된다면(그렇게 해).
A : 고마워, 이렇게 하니 한결 낮네.

- ① 내가 원하는 대로 해 ② 차라리 그대로 뒤
- ③ 당연하지 ④ 난 상관없어
- ⑤ 그래야 된다면(그렇게 해)

정답해설 : A의 두 번째 진술로 보아 A의 질문에 대한 B의 반응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② Lass es lieber이다. **정답 ②**

12. 제안의 표현 이해하기

A : 식욕이 별로 없네. 난 뭘 먹어야 할까?
B : 좀 가벼운 것을 먹어.
A : 네 말이 맞아. 작은 샐러드가 좋겠어.

- ① 좀 가벼운 것을 먹어 ② 내가 너에게 커피를 살게
- ③ 메뉴판 좀 쥐 ④ 너는 식사하면서 내 말을 들어도 돼
- ⑤ 넌 정원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정답해설 :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가벼운 음식을 권하는 ① Nimm doch etwas Leichtes가 정답이다. **정답 ①**

13. 사물 특성 묘사하기

- ① 아이는 자동차 안에 앉아있다. ② 고양이는 벤치 위에 누워있다.
- ③ 공은 현관문 앞에 놓여있다. ④ 자동차는 집 옆에 있다.
- ⑤ 집은 나무들 사이에 있다.

정답해설 :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④ Das Auto steht neben dem Haus.뿐이다. **정답 ④**

14. 안내문의 내용 이해하기

자전거 동호인 여러분!
우리와 소풍을 하러 갑시다.
우리는 7월 17일 토요일 10시에 토마스 교회 앞에서 만납니다.
중요!
식사와 음료는 직접 가져와야 합니다.

정답해설 : 안내문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⑤ 자전거 동호인들은 토요일에 소풍을 갈 예정이다.뿐이다. 정답 ⑤

15. 식당 대화 이해하기

(식당에서)

A : 맛이 있으셨어요?

B : b. 네, 식사는 훌륭했습니다.

A : 더 주문하실 것이 있으세요?

B : c. 네, 바나나 케이크 하나를 원합니다.

A : 곧 가져다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것이 필요하신지요?

B : a. 아니요, 그것이 다입니다.

<보 기>

a. 아니요, 그것이 다입니다

b. 네, 식사는 훌륭했습니다

c. 네, 바나나 케이크 하나를 원합니다

정답해설 : 대화의 내용에 맞게 순서를 배열한 것은 ③ b - c - a이다. 정답 ③

16. 수업 시간표 이해하기

① 수요일에는 영어 수업 전에 미술 수업이 있다.

②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체육 수업이 있다.

③ 화요일에는 물리 수업이 한 시간 있다.

④ 월요일에는 2교시에 독일어 수업이 있다.

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날마다 여섯 과목이 있다.

정답해설 : 시간표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① Mittwochs hat er Kunst vor Englisch.이다. 정답 ①

17. 글의 내용 이해하기

지수에게,

2주 전부터 난 여기 인터라켄의 호텔에 와 있어. 내 방에서는 호수와 산을 볼 수 있어. 난 오늘은 호수에 가고 내일은 산에서 하이킹을 할 거야. 왜냐하면 날씨가 정말 좋거든. 유감스러운 것은 모레 난 다시 일하러 가야 한다는 거야.

안녕

모니카

① 어제부터 인터라켄에는 구름이 끼어 있다.

② 오늘 모니카는 산에서 하이킹을 한다.

③ 2주 전에 지수는 호텔을 예약했다

④ 지수는 가능하면 빨리 인터라켄으로 가려고 한다.

⑤ 이틀 후에 모니카는 다시 일을 시작한다.

정답해설 :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⑤ In zwei Tagen beginnt Monika wieder mit ihrer Arbeit.이다. 정답 ⑤

18. 초대에 대한 수락 표현 이해하기

A : 난 토요일에 파티를 열 거야. 너 시간 있니?
B : 그런데 파티는 언제 시작해?
A : 7시에.
B : 그 시간이 내게 잘 맞아. 기꺼이 갈게.

① 거스름돈은 가지세요(봉사로 제공)

② 그것은 불가능해

③ 그때는 가능하지 않아

④ 그 시간이 내게 잘 맞아

⑤ 금요일에 나는 떠나야 해

정답해설 : 파티 초대에 대해 수락하는 표현으로 알맞은 것은 ④ Das passt mir gut 이다. 정답 ④

19. 거절 의사 표명하기

(휴대전화)
A : 밖이 벌써 어두워졌어. 내가 자동차로 너를 빨리 데리고 올게.
B : 그럴 필요 없어. 걸어가도 시간이 거의 비슷하게 걸릴 거야.(걷는 거나 시간은 비슷할 것이야)
A : 그렇다면 조심해서 오렴.

① 내 마음에 들어

② 나는 원해

③ 그럴 필요 없어

④ 좋은 생각이야

⑤ 나쁘지 않은 거 같아

정답해설 : 걸어서 가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므로 밑줄 친 곳에 알맞은 것은 ③ brauchst du nicht이다. 정답 ③

20. 축하 인사하기

A : 마침내 시험에 합격했어.
B : 축하해! 네가 잘되어 나도 기뻐.
A : 고마워. 나도 너무 기뻐.

① 네가 잘되어 나도 기뻐

② 상당히 마음이 아픈걸

③ 나는 그것에 관심이 없어

④ 그건 어쩔 수 없어

⑤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정답해설 : 시험에 합격한 것을 축하하는 상황이므로 밑줄 친 곳에 알맞은 것은 ① Ich freue mich für dich이다. 정답 ①

21. 독일어 표현 묻기

A : 실례합니다, 이것을 독일어로 어떻게 말하나요?
B : 그것은 컴퓨터입니다. C-O-M-P-U-T-E-R.
A : 아하, 영어와 같네요.

- ① 제가 어디에서 철자를 말할 수 있나요
- ② 당신의 성함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알 수 있나요
- ③ 제가 어째서(왜) 그것을 쓸 수 있을까요
- ④ 이것을 독일어로 어떻게 말하나요
- ⑤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나요

정답해설 : 대상의 독일어 명칭을 묻는 표현으로 알맞은 것은 ④ wie sagt man das auf Deutsch이다. 정답 ④

[22~26] 문화

22. 지역별 '방언'에 관한 글 이해하기

독일 사람들은 독일어를 한다. 그렇지 않나요? 실제로는 베를린 사람이 가끔 뮌헨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둘은 독일어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독일어를 하는 것은 맞지만, 독일어에는 많은 방언이 있다. '작은 빵(Brötchen)'의 경우만 보더라도 8개 이상의 서로 다른 단어들에 있는데 예를 들자면 베를린에서는 '슈리페(Schrippe)', 뮌헨에서는 '젼멜(Semmel)' 혹은 마인츠에서는 '베크(Weck)'라고 한다.

- <보 기>
- a. 뮌헨에서 '베크'는 작은 빵을 의미한다.
 - b. 독일어에는 여러 가지 방언이 있다.
 - c. 베를린에서는 작은 빵 대신 '슈리페'라는 단어를 들을 수 있다.
 - d. 베를린 사람과 뮌헨 사람은 같은 방언을 사용한다.

정답해설 : 방언에 대한 글을 올바르게 이해한 내용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③ b, c 이다. 정답 ③

23. 마르셀 라이히-라니츠키에 관한 글 이해하기

마르셀 라이히-라니츠키는 1920년 6월 2일 폴란드의 블로클라베크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독일인이었고, 아버지는 폴란드 출신이었다. 그는 1938년 아비투어 시험을 보았지만, 대학에서 공부를 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독일인들에게 그는 '문학계 교황'과 같은 존재였는데, 이는 그가 독일 최고의 문학비평가 중 한 명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업적을 인정받아 그는 많은 상과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2013년 9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 ① 그의 아버지는 9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 ② 그는 2013년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 ③ 그는 문학계 교황상을 받았다.
- ④ 그의 어머니는 그가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 ⑤ 독일에서 그는 위대한 문학비평가였다.

정답해설 : 마르셀 라이히-라니츠키를 소개한 글을 올바르게 이해한 것은 ⑤ In Deutschland war er ein großer Literaturkritiker.이다. **정답 ⑤**

24. '함부르크 알토나 어시장'에 관한 글 이해하기

함부르크 알토나 어시장은 1703년부터 있었다. 이것은 부지런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4월에서 10월까지 매주 일요일 굉장히 이른 시간인 5시부터 시작하고 9시 30분이 되면 또 끝난다. 유명한 호객 상인들은 생선뿐만 아니라 꽃과 과일을 판매한다. 신선한 생선 샌드위치(Fischbrötchen)와 새우 샌드위치(Krabbenbrötchen)는 특히나 맛있다.

- ① 이 시장은 함부르크가 본고장이다.
- ② 이 시장에는 호객 상인이 있다.
- ③ 부지런한 사람들은 이 시장에 거의 오지 않는다.
- ④ 이 시장은 300년보다 훨씬 오랜 시간 동안 있었다.
- ⑤ 시장에서는 꽃과 과일을 살 수 있다.

정답해설 : 함부르크의 알토나 어시장에 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③ Fleißige Menschen kommen selten zum Markt.이다. **정답 ③**

25. 독일 도시, Frankfurt am Main 알기

이 도시에는 독일에서 가장 큰 공항과 유럽 중앙은행이 있다. 이 도시는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출생지이며, 이곳에 있는 대학 중 한 곳이 그의 이름을 따서 불리고 있다.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이 도시에 있는 박물관이나 박람회를 방문한다. 잘 알려진 도서 박람회는 2021년 10월에 개최된다.

정답해설 : 독일 최대의 공항과 유럽 중앙은행이 있으며, 괴테가 출생한 곳은 ⑤ Frankfurt am Main.이다. **정답 ⑤**

26. '우유 쌀죽'에 대한 소개글 이해하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달콤한 후식으로 '우유 쌀죽'을 즐겨 먹는다. 우선 쌀을 굉장히 오래 우유에 삶는다. 그리고 이것을 차갑게 또는 따뜻하게 먹기 전에 버터와 과일 또는 계피와 설탕과 같은 다양한 재료를 첨가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우유 쌀죽을 슈퍼마켓에서도 살 수 있다.

정답해설 : 우유 쌀죽에 대한 글을 올바르게 이해한 것은 ② 후식으로 즐겨 먹는다. 이다. 정답 ②

[27~30] 문법

27. 동사의 현재 인칭변화 및 명사의 활용 이해하기

A : 우리 언제 출발해요?
B : 아침 식사 후에. 너의 (b) 짐을 직접 (a) 쌀 수 있겠니?
A : 네, 그렇게 할게요.

정답해설 : Gepäck은 단수형만 있는 명사이므로 '짐을 싸다'라는 표현이 2인칭의 형태로 올바르게 활용된 ③ (a) Packst (b) Gepäck이 정답이다. 정답 ③

28. 단위 명사의 단·복수형 및 활용 알기

a. 저는 치즈 세 조각 주세요.
b. 상점에서 다니엘은 감자 4킬로를 산다.
c. 그는 오후에 항상 초콜릿 2판을 먹는다.

정답해설(오답해설) : Kilo 등과 같은 질량 단위 명사는 채소나 과일 명사의 복수형과 함께 활용하므로 b는 'Im Geschäft kauft Daniel vier Kilo Kartoffeln.'이 올바른 표현이다. a의 중성 명사 Stück을 단위 명사로 활용하는 경우 단수형의 형태로만 활용하며, c의 여성 단위 명사 die Tafel은 2개 이상의 수량을 나타내는 경우 복수형의 형태로 쓰는 것이 올바른 용법이므로 정답은 ③ a, c이다. 정답 ③

29. 부정 대명사와 형용사 어미변화의 활용 알기

a. 셋 중 한 명은 도서관에서 공부한다.
b. 그는 그 누구보다 자신의 딸을 사랑한다.
c. 내게는 아직 더 많은(다양한) 채소가 부엌에 있다.
d. 두 서넛 명의 적은 수의 학생들이 같은 실수를 한다.

정답해설(오답 해설) : ‘~ 중 하나’를 의미하는 ‘단수 부정 대명사 + 복수형 2격’을 활용하므로 a는 서수 dritt-에 약변화 복수형 2격 어미 ‘-en’을 붙인 Jeder der Dritten lernt in der Bibliothek.이 올바른 표현이다. Gemüse는 단·복수형이 같은 형태이며, mehr와 weniger는 복수형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에도 형용사 어미변화를 하지 않으므로 c는 Ich habe noch mehr Gemüse in der Küche가 올바른 표현이다. 밑줄 친 부분이 올바르게 활용된 것을 모두 고른 ④ b, d가 정답이다. **정답 ④**

30. 전치사 숙어 구문의 활용 알기

- a. 나는 그 비행기를 남쪽으로 운항했다.
- b. 지난달 말에 나는 시골로 여행을 갔다.
- c. 그 아이는 그의 어머니의 목에 매달렸다(목을 끌어안았다).

정답해설 : ‘in den Süden fliegen(남쪽으로 이동하다)’, ‘aufs Land reisen(시골로 여행가다)’와 ‘jemandem um den Hals fallen(누구의 목을 끌어안다/누구의 목에 매달리다)’은 모두 올바르게 활용되었으므로 정답은 ⑤ a, b, c이다. **정답 ⑤**